

은호야, 피아노로 노래해 볼까?

슈베르트와 만나는 즉흥곡 4번



은호: 슈베르트 선생님, 음들이 반짝이며 내려오는 것 같아요!

슈베르트: 반가워, 은호야. 반짝이는 음들 사이에서 노래를 찾아보렴. 피아노도 사람처럼 숨을 쉬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단다.

오늘의 작품은 즉흥곡 내림가장조 Op.90 No.4, D.899다. 은호가 슈베르트를 만나는 장면과 대사는 교육을 위한 창작이다.

생각해 볼 질문

이 작품의 번호와 기본 조성은 무엇일까?

정답

Op.90의 4번, 내림가장조(A $\flat$ 장조, As-Dur)야.

작은 연습 미션

곡을 듣고 떠오르는 장면을 한 문장으로 말해 보자.

1827년, 빈에서 피어난 음악

한 사람의 마음이 피아노로



은호: 선생님도 베토벤처럼 빈에서 살았나요?

슈베르트: 그렇단다. 같은 도시에서도 사람마다 듣는 소리와 마음은 다르지. 오늘은 내 음악에서 네 귀가 발견하는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자.

슈베르트는 빈에서 태어나 활동했다. Op.90의 네 즉흥곡은 1827년에 작곡되었다. 그림 속 빈은 시대를 떠올리는 상상 장면이다.

생각해 볼 질문

Op.90의 즉흥곡들이 작곡된 해는?

정답

1827년이야. 그림의 세부 장면을 실제 작곡 상황으로 단정하지는 않아.

작은 연습 미션

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음악을 짧게 듣고 소리의 차이를 한 가지 적자.

즉흥곡이면 마음대로 쳐도 될까요?

자유롭게 들리지만 정교한 작품



은호: 즉흥곡은 그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만든 음악인가요?

슈베르트: 생각이 막 떠오르는 듯 들려도, 연주자는 적힌 음과 흐름을 살피야 해.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 문장을 잘 이해하는 것과 같지.

Impromptu라는 이름은 즉흥적인 성격을 떠올리게 하지만, 이 작품은 악보가 있는 작곡된 피아노 독주곡이다. 자유로운 느낌과 정확한 읽기는 함께 간다.

생각해 볼 질문

즉흥곡이라는 제목이 악보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일까?

정답

아니야. 악보를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생생하게 표현하는 거야.

작은 연습 미션

짧은 구절의 음과 리듬을 확인한 뒤, 말하듯 자연스럽게 연주하자.

네 곡 가운데 네 번째 창문

Op.90의 마지막 즉흥곡



은호: 2번과 4번은 같은 곡의 다른 부분인가요?

슈베르트: 같은 묶음에 있지만 각각 자기 얼굴이 있지. 서로 다른 방의 창문처럼, 네 곡은 다른 풍경을 열어 준단다.

Op.90 D.899는 네 개의 즉흥곡으로 이루어진다. 2번은 내림마장조(Es-Dur), 4번은 내림가장조(As-Dur)이며 별개의 작품이다.

생각해 볼 질문

Op.90 2번과 4번의 기본 조성은 같을까?

정답

달라. 2번은 내림마장조, 4번은 내림가장조야.

작은 연습 미션

이 사이트의 은호 연주 2번과 4번을 듣고, 시작의 움직임을 비교하자.

내려오는 음들의 작은 폭포

아르페지오의 흐름



이 곡의 바깥 부분에서는 내려오는 아르페지오가 두드러진다. 아르페지오는 화음의 음들을 차례로 펼쳐 연주하는 것이다. 폭포는 감상을 위한 비유다.

생각해 볼 질문

아르페지오는 화음의 음들을 동시에만 치는 것일까?

정답

아니야. 화음의 음들을 차례로 펼쳐 연주하는 거야.

은호: 음이 계속 내려오는데 모두 같은 세기로 쳐야 할까요?

슈베르트: 작은 물줄기가 한 흐름을 만들듯 음들도 이어져야 하지. 음마다 힘을 주기보다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로 가는지 귀로 따라가 보렴.

작은 연습 미션

짧은 음형을 천천히 치며 첫 음부터 끝 음까지 하나의 선으로 듣자.

밝은 제목 속의 여러 빛깔

장조 곡에도 그늘이 있다



은호: 내림가장조면 항상 밝고 즐거워야 하나요?

슈베르트: 하루에도 햇빛과 그늘이 함께 있지. 조성의 이름만으로 모든 마음을 정하지 말고, 그 순간의 화음과 선율을 들어보렴.

작품의 기본 조성이 장조여도 곡 안에는 단조와 다양한 화음의 색깔이 나타날 수 있다. ‘밝음’과 ‘그늘’은 단순한 감상 비유이며 조성의 정의가 아니다.

생각해 볼 질문

장조 작품에는 단조의 색깔이 나타날 수 없을까?

정답

나타날 수 있어. 기본 조성과 곡 안의 순간적인 화음은 구별해야 해.

작은 연습 미션

더 긴장되거나 편안하게 들리는 곳을 찾아 악보에 작게 표시하자.

음들 사이에 숨어 있는 노래

선율과 바탕을 나누어 듣기



은호: 많은 음들 가운데 무엇을 가장 잘 들리게 해야 하죠?

슈베르트: 노래할 수 있는 줄을 먼저 찾아보렴. 나머지 음들은 그 노래가 걸어갈 길을 만들어 주지. 누가 이야기하는지 귀가 알게 해 주는 거야.

슈베르트의 피아노 음악에서는 노래하는 표현이 중요하다. 음이 많은 부분에서도 선율과 반주의 균형을 살핀다. 성부의 역할은 구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
생각해 볼 질문

모든 성부가 똑같이 크게 들려야 할까?

정답

아니야. 중요한 선율과 이를 받치는 소리를 구별해 균형을 만들자.

작은 연습 미션

선율을 먼저 노래한 뒤 반주를 작게 더해 녹음해 보자.

손은 부드럽게, 귀는 또렷하게

힘보다 움직임을 살피기



은호: 잘 안 되면 손에 힘을 더 주면 될까요?

슈베르트: 편안한 움직임을 먼저 찾아보렴. 손이 굳으면 작은 음들도 무거워질 수 있지. 선생님과 손의 이동을 천천히 살펴보자.

연습에서는 무리한 반복보다 편안한 움직임과 소리의 균형을 점검한다. 운지와 손의 이동은 손 크기와 사용하는 악보에 맞춰 지도교사와 정한다.

생각해 볼 질문

빠른 음형을 연습할 때 무조건 힘을 더 주면 될까?

정답

아니야. 느린 속도에서 편안한 움직임과 고른 소리를 먼저 찾자.

작은 연습 미션

짧은 음형 뒤 잠깐 쉬며 손과 어깨에 불필요한 힘이 남는지 살피자.

서두르지 않는 Allegretto

가는 음과 큰 박을 함께



은호: 음이 많으면 무조건 빠르게 달려야 하나요?

슈베르트: 작은 음들이 바빠도 큰 걸음은 안정될 수 있어. 길을 잃지 않도록 박을 듣고, 문장의 끝에는 자연스러운 숨을 남겨보렴.

이 곡의 템포 표시는 Allegretto다. 작은 음표의 움직임과 큰 박의 흐름을 함께 느끼면 서두르는 연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.

생각해 볼 질문

작은 음표가 많다는 것이 무조건 더 빨리 치라는 뜻일까?

정답

아니야. 템포와 큰 박의 흐름을 지키며 작은 음들을 연결해야 해.

작은 연습 미션

박을 작게 세면서 짧은 구절을 느리게 연주하고, 문장 끝을 들어보자.

가운데에서 다른 목소리를 만나다

노래하는 올림다단조 중간부



은호: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아요!

슈베르트: 같은 여행에서도 다른 마음을 만날 수 있지. 더 긴 노래를 따라가며 화음이 어떻게 그 마음을 받쳐 주는지 들어보렴.

중간부에는 올림다단조(C # 단조, cis-Moll)의 서정적인 Trio가 나타난다. 바깥 부분의 내려오는 음형과 대비되는 표현을 귀로 살핀다.

생각해 볼 질문

중간부에서 중요한 조성은 무엇일까?

정답

올림다단조, 독일어로 cis-Moll이야.

작은 연습 미션

중간부의 선율을 노래해 보고 바깥 부분과 다른 점을 두 가지 적자.

페달은 색을 섞는 붓

선명함과 울림의 균형



은호: 부드럽게 들리려면 페달을 계속 밟으면 될까요?

슈베르트: 색을 너무 많이 섞으면 그림이 흐려질 수 있지. 화음이 바뀔 때 귀로 울림을 살피고, 노래가 선명한지 확인해 보렴.

페달은 울림을 이어 주지만 화음이 흐려질 수도 있다. 페달 표시는 사용 악보를 확인하고, 악기와 공간에 맞춰 귀로 조절한다.

생각해 볼 질문

페달을 오래 밟을수록 언제나 더 좋은 소리가 될까?

정답

아니야. 화음과 선율이 선명하게 들리는지 확인하며 조절해야 해.

작은 연습 미션

한 구절을 페달 없이, 적게 사용하며 각각 녹음해 선명함을 비교하자.

익숙한 길로 돌아오다

다시 듣는 바깥 부분



은호: 처음의 움직임이 다시 나왔어요. 똑같이 들리나요?

슈베르트: 기억하는 길도 여행 뒤에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. 돌아온 음악의 모양을 알아보고, 지금 너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말해보렴.

이야기를 이해하는 큰 틀로 바깥 부분-중간부-바깥 부분의 귀환을 생각할 수 있다. 이것은 전체 형식을 간단히 듣는 길잡이이며 모든 세부 구조를 대신하지 않는다.

생각해 볼 질문

귀환하는 음악을 들을 때 무엇을 비교할 수 있을까?

정답

처음과 같은 음형, 달라진 화음이나 느낌, 전체 흐름 속의 역할을 비교할 수 있어.

작은 연습 미션

시작과 귀환을 이어 듣고, 같게 들리는 점과 다르게 느껴지는 점을 적자.

천천히 연습해서 자연스럽게

짧게 나누고 다시 잇기



은호: 외웠는데도 어떤 부분은 자꾸 흔들려요!

슈베르트: 기억하는 것과 안정되게 들려주는 것은 다르지. 짧게 나누고, 각 손의 역할을 듣고, 다시 이어보렴. 귀가 납득하는 속도로 시작하자.

암보가 끝나도 소리의 균형과 연결은 계속 다듬는다. 짧은 구간, 손 따로, 느린 연결, 점진적인 속도 조절을 조합한다.

생각해 볼 질문

악보를 외웠으면 느린 연습은 필요 없을까?

정답

필요해. 기억과 별개로 음, 움직임, 프레이즈를 확인할 수 있거든.

작은 연습 미션

흔들리는 두 마디를 골라 천천히 세 번 안정되게 잇고 앞뒤를 더하자.

이제 은호의 노래가 되다

듣고, 돌아보고, 다시 연주하기



은호: 제 연주를 듣고 무엇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?

슈베르트: 먼저 잘 전해진 한 가지를 찾아보렴. 그다음 더 또렷하게 노래하고 싶은 한 구절을 고르자. 음악을 듣는 귀가 다음 연주를 자라게 한단다.

아래에는 사용자가 제공한 은호의 연주 영상이 연결되어 있다. 이 이야기는 특정 녹음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대신하지 않는다.

생각해 볼 질문

연주를 돌아볼 때 실수만 세어야 할까?

정답

아니야. 잘 전달된 점과 다음에 다듬을 점을 하나씩 찾는 것이 도움이 돼.

작은 연습 미션

은호의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든 한 구절과 다음 연습 목표를 적자.

제작과 출처

Kwang Hee Yu · EUNHO'S PIANO STORIES · 2026

한국어 · 독일어 교육용 창작 대화. 슈베르트의 실제 인용문이 아닙니다.

AI-assisted illustrations · Original composition by Franz Schubert is in the public domain.

1827 · Impromptu As-Dur op.90 Nr.4, D899 · Sources below.

G. Henle Verlag: Impromptu As-Dur op.90 Nr.4 D899

Bärenreiter: Impromptus op.90 D899 and op.142 D935

Schubert Online: manuscripts and sources

Eunho performance · <https://youtu.be/ArbaJPXIXGs>